

어느덧 2013년도 며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년이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지난 1년이 긴 세월처럼 느껴집니다. 1월엔 이사를 하고, 3월엔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들어왔고, 5월엔 단체 개소식을 했습니다. 또 4기 사이버포래상담원들이 3명이나 사또실에서 자신들의 성장을 위한 길을 나섰습니다. 7월과 10월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11월은 더욱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활동을 위해 단체명을 ‘십대여성인권센터’로 개정하였으며, 12월엔 34명의 법률·의료·심리지원단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참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할 때는 옛날처럼 일하진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결국 그렇게 또 쉽없이 달렸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내왔지만 앞으로 더 많은 과제 앞에 선 느낌입니다.

성인 성매매 피해자를 중심으로 일할 때와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중심으로 일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달랐습니다. 아동·청소년 쪽은 성인들보다 훨씬 지지도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과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과 청소년이 국가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제도들도 아이들에게 맞추고 수많은 아동·청소년 복지 단체와 상담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밖 아이들이나 가출 등으로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매매 등의 수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체계는 전무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합니다. 아동·청소년 정책은 오직 학교 교육과 대학진학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가정에 있어야 하고, 감정과 감수성은 성인이 될 때까지 느끼면 사고를 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니 되도록 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청소년기는 결코 ‘성’에 대해 경험해선 안되는 것입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성’을 경험하고 아무 준비도 없이 ‘성’을 겪게 되어 아이의 건강이나 미래에 해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이 성적 존재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TV나 신문, 인터넷, 게임물 등에서는 온갖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특히 여아들은 ‘잘 살고 싶으면 예쁘고 섹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매일같이 세례받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이 ‘섹시’하지만 않고 ‘섹스’를 하면 큰일이 납니다. 성적존재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만 존재해야 할 아이들이 ‘섹스’를 하면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성인도 아닌데 성을 밝히는 위험한 존재가 되고, 순진한 성인들을 유혹하여 타락으로 이끄는 사악한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그 아이들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과 구별해서 처벌받고 갱생되어야 하지만, ‘성인’이 아니니 최소한 처벌은 면해주겠다는 선처(?)로 ‘보호관찰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이라 하여 6개월에서 길게는 2년동안 ‘소년원’에 격리되거나 ‘야간통행금지’ 명령을 받아 아무 때나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야 하는 보호를 받는데, 아이들에게 ‘소년원’은 ‘감옥’으로 ‘야간통행금지’는 ‘전자발찌’와 같은 처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전면개정되어 올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청법에서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분리하고 있는데, 성폭력을 당하면 피해 아동·청소년이 되고, 성매매를 하면 대상 아동·청소년이 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와 돌봄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데 반해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국가가 처벌과 갱생의 아버지 역할을 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만나는 아이들의 상황이 성폭력인지 성매매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14살짜리 아이가 명절 때 친척집에 가서 사촌들과 함께 채팅을 하면서 놀았는데, 그때 채팅했던 성인이 계속 인터넷으로 말을 걸어와 다시 채팅을 하게 되었고, 그 후 그 남자가 드라이브를 해주겠다 하여 집까지 차를 몰고 와 아이는 남자의 차에 탔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 모텔에서 잠시 눈만 붙이자하며 아이를 데리고 가 성폭력한 후, 다시 아이를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면서 2만원의 용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돈을 왜 주냐는 아이의 질문에 그냥 뭐 사먹으라 하면서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에 그 돈을 받아 집에 돌아온 아이는 그 사건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 계속 그 남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폭력당하고 성매매 알선까지 당한 사건이 있는데, 그럼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일까요? 아니면 성매매 사건일까요? 또 다른 사례는, 한 동네에서 함께 친구로 지내왔던 세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들 셋 중 한 아이는 가출하여 성인 남성과 조건만남을 하며 거리에서 살고 있고, 두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날 세 아이가 거리에서 대학생 오빠 3명을 만났고 오빠들이 모텔에 가서 같이 놀자는 말에 꼬여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려던 중,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경찰은 이 사건을 성폭력사건으로 처리를 했을까요? 성매매사건으로 처리 했을까요? 독자님들이 경찰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셨을 거 같으세요? 불행히도 이 사건의 세 아이들은 모두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구분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법적으로 성폭력피해와 성매매대상으로 구분해 봤는데 그나마 법집행 현장에서는 그 구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사 편의적으로 아이들 모두를 대상청소년으로 분류해버린 것입니다. 아이들의 이러한 상황에 저희는 경악을 했지만, 정작 아이들은 성폭력 피해인지, 대상아동·청소년인지 자신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어떤 보호를 받아야 하고, 어떤 침해를 받았는지 그 차이에 대해 전혀 이해도 없었고, 그저 본인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성폭력 범죄자와 성구매 범죄자 사이에도 굉장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구매 행위는 성폭력 범죄보다 훨씬 가볍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성인 성범죄자들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을 성매매의 형태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쁘다’, ‘사랑한다’ 등의 감언이설로 꼬이고 선물이나 음식을 사주고, 용돈과 심지어 ‘조건을 할 거면 오빠랑 해라’라며 지속적인 만남과 성행위의 대가를 제공하여 실제 수사 현장에서 본인들은 이 아이들과 연애를 한거라고 말하거나 성매매는 인정하지만 성폭력은 아니라는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고 있습니다. 점점 지능화하고 있는 이들 성범죄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까요? 성구매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들 성범죄자들은 어쩔 수 없으니 우리 아이들 단속이나 열심히 하자는 방법만이 최선일까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정책이 갈수록 아이들의 자율권이나 창조력, 상상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없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않은 사고들은 모두 부모의 탓으로 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방향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2014년도에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법적으로 문제제기 할 계획입니다. 아청법도 그렇지만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도 현실적으로 위기 청소년들을 더욱 궁지에 몰고 있는 법률입니다. 수사 현장에서도 십대 아이들은 너무 함부로 대해지고 있음을 많이 느낍니다.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나마 대변하고 보호해야 할 부모들도 없으니 정말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성매매피해상담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과 치유 프로그램을 가족으로 확대시킬 계획도 있습니다. 원가족의 문제가 하루이틀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지가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함께 노력해서 풀어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래저래 2014년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내년엔 5기 사또상담원들이 자신들의 성장을 위한 길을 떠나게 될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이 길에서 만나게 될 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며 신나게 또 한 해를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우리의 길에 동참해 주시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 뉴스레터(제3호) 계획안

작성자 : [REDACTED]

작성일 : 2013. 12. 9

- 목적 : 사이버포래상담실의 대내외 활동을 유관기관 및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반성매매운동의 동향을 전달한다.
- 디자인 컨셉 :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
- 일정
  - 12/10 계획안 확정
  - 12/13 원고마감
  - 12/19 원고편집
  - 12/20 디자인 의뢰
  - 12/26 발송

---

Newsletter No.3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포래상담실/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서울시 강서구 [REDACTED] || 02-6348-1318 || 010-3232-1318 || [REDACTED]

---

사이버포래상담실이 2013년 11월부터 '십대여성인권센터'로 단체명을 변경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십대와 여성의 성인권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전문적이고 내실 있게 활동해 가겠습니다. 새 이름으로 2014년을 맞이하게 된 십대여성인권센터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길에서 보내는 편지** <길에서 보내는 편지>는 우리네 활동에서 마주치는 현상과 에피소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고민하기 위한 조진경 대표의 현장이야기입니다.

-----  
-----  
-----  
-----  
-----  
-----  
-----  
-----  
-----  
-----

<자세히 보기>

■ 활동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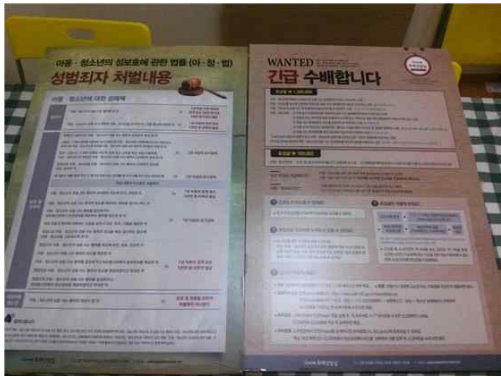
[사무국]

<p>비공개처리</p>	
<p><b>법률/의료/심리지원단 발대식</b>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10명)/의료(11명)/심리(13명)지원단을 구성하고 12월 2일(월) 저녁 6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센터의 비전과 그간의 활동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 지원단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지원단 전문가들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여성과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의 인권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지원단장 : █████ 변호사 (법무법인(유) 원)</li> <li>- 의료지원단장 : █████ 전문의(오산무지개연합의원)</li> <li>- 심리지원단장 : █████ 교수(명지대 특수대학원 예술치료학과)</li> </ul>	<p><b>아청법 개정 워크숍(2)</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논의팀은 10월 28일(월)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시스템을 ‘대상청소년’ 개념 유무로 점검하며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고 ‘대상청소년’이 아닌 ‘성매매피해 청소년’으로 개념 규정될 때 이들에게 어떠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기존 아청법 논의팀은 물론, 청소년쉼터 평화의 샘,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노원늘푸른자립학교 대표와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국의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성폭력상담소, 민우회 등 다양한 기관들의 열띤 토론으로 아청법 개정 논의가 더욱 풍부해 지는 좋은 자리였습니다.</p>
<p>비공개처리</p>	<p>비공개처리</p>
<p><b>업무협약체결</b>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지난 3월부터 여성가족부 산하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수탁운영하며 여러 기관과 업무협조를 맺어왔습니다. 특별히 서울동부보호관찰소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많은 피해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었고 앞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11월 18일(월) 서울동부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센터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안정된 사회복귀와 성인권 향상을 위해 더 많은 활동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p>	<p><b>운영위원회</b> 올 한해 사이버포래상담실의 개소식부터 명칭변경, 그리고 법률/의료/심리지원단 구성 후 발대까지 운영위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 센터의 사업과 사례들에 대한 조언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고, 물질적으로도 센터의 살림을 하나하나 챙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청소년들과 만나 다양한 활동들을 기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14일(월) 저녁에는 좁지만 본 센터에 옹기종기 모여 명칭변경을 두고 논의하였고 마침내 ‘십대여성인권센터’라는 멋진 이름이 탄생하였습니다. 또, 장민혜 위원이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짹짹!</p>

비공개처리	비공개처리
<p><b>지속교육</b>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상담원의 역량을 고루 개발시키기 위해 독서토론회, 전문가 초청교육, 외부토론회 참여 등으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담론들을 경험하면서 견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8월에는 '여성운동의 역사'라는 주제로 ■■■ 선생님을 모시고 살아있는 경험을 배움으로 전수받았고, 9~12월에는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3만엔 비즈니스, 적게 일하고 행복하기」, 「굿바이 회전목마」를 읽고 자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읽어도 읽어도 어려운 말들이지만 하나씩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 가며 사또들은 오늘도 눈에 띄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p>	<p><b>보수교육</b> 10월 16일(수)~18일(금), 올 한해 사또 4기를 맞이하느라, 낯선 곳에서 적응하느라, 또 서울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수탁 운영하느라 고생한 모든 식구들이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른 기관의 활동들이 궁금하다는 사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전 현장상담센터와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도 방문하고 알콩달콩 저희끼리 게임도 즐기며 오랜만에 아이들 마냥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다른 기관의 활동들을 둘러보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고, 그 많은 일들을 수행하려면 건강해야겠다는 생각에 부산의 맛집들을 짝쓸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를 기쁘고 푸짐하게 대접해 주신 부산의 기관들에 감사드리며, 저희는 더 다양한 활동들로 보답하겠습니다.</p>

[사이버포대상담실]

비공개처리	<사진없음>
<p><b>청소년직업박람회/청소년성매매예방 서울지역 캠페인</b></p> <p>9월 27일(금), '2013 So-da 직업체험관 캠페인'에 상담팀 전원이 참여하여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이버포대상담원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날인 28일(토)에는 '2013 서울지역 청소년 성매매예방 전국 공동캠페인'에 십대여성인권센터 실무자 전원이 참석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와 성매매예방에 대한 전단지 배포하고 아청법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관념을 전시, 설명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유관기관과의 연대캠페인은 물론 인천 지역에서 자체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p>	<p><b>여가부 폭력예방교육팀, 권익증진국장 방문 사업설명</b></p> <p>9월 3일(화),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사무국장, 상담팀장이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팀을 방문하여 사업보고를 하였으며, 이틀 뒤 5일(목)에는 여성가족부 ■■■ 권익증진국장님을 만나 사업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성가족부 폭력예방팀과 권익증진국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비공개처리</p>	
<p><b>부산 인터넷 감시단 간담회</b></p> <p>11월 28일(목), 부산 살림상담소에서 열린 '인터넷 감시단 사업보고회 및 전문가 집담회'에 사무국장, 상담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성매매알선·구매자 신고활동과 그와 관련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사업별 연대활동을 계획하고 향후 효과적인 활동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어 실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p>	<p><b>웹전단 '신고포상금제도' 제작</b></p> <p>상담팀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웹전단을 제작하였습니다. 홍보 웹전단을 통해 많은 피해청소년들이 신고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피해청소년들이 신고해 온 성범죄에 대해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과 십대여성인권센터의 법률지원단이 공동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p>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p style="text-align: center;">비공개처리</p>
<p><b>청소년성장캠프</b> 10월 9일(수)~14일(월), 11월 24일(일)~29일(금)에는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3, 4차 '청소년성장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간의 노력들이 결실이 되어 친구의 소개로 참여하게 된 친구들, 유관기관의 연계로 참여하게 된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3차 캠프에는 6명, 4차 캠프에는 8명이 수료하였고, 캠프 후에는 인턴십 센터, 대안학교 등에 연계되어 오랜만에 바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업 초반에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으나 운영에도 노하우가 생겨 프로그램도 많이 안정화되었습니다. 더 많은 공부와 노력으로 저희를 찾는 청소년들이 멋진 사람, 멋진 기회와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b>지지도모임</b> 캠프를 통해 본 센터를 신뢰하고 캠프 기간 동안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한 참여자들의 지지도모임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지요. 지난 9월에는 대학로에서 가을 경치를 구경하며 여유롭게 화덕피자를 먹은 뒤 '김종욱 찾기' 뮤지컬을 관람하였고, 11월에는 1박 2일로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맨발로 게임도 하고 분위기 있게 바비큐 파티도 했습니다. 12월에는 한해를 마무리하며 장애인 복지시설로 봉사활동을 다녀왔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비누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곧 방학을 맞이하는 친구들이 무사히 겨울을 나고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도 꾸준히 지원할 예정입니다.</p>

비공개처리	비공개처리
<p><b>통합 솔루션 회의</b>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올 3월부터 현재까지 약 60여명의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이중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약 24명의 사례는 내부사례 회의는 물론 외부 기관과의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양천구청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주최로 진행된 통합 솔루션 회의에 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쉼터 등 유관기관, 구청, 법률/의료/심리지원단과 함께 기존보다 더 확대된 사례회의로 내담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p>	<p><b>교육센터 활동가 보수교육</b> 올해 마지막 청소년성장캠프가 종료된 직후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활동가들에게도 쉼과 치유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위탁기관인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마련한 활동가 보수교육으로 2박 3일간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잠자리는 물론 제주도의 먹거리를 모두 맛볼 수 있었고 짜임새 있는 관광으로 짧지만 내년으로 가는 길목에서 에너지를 UP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초반이라 이래저래 갈등과 고민이 많았었는데 다른 지역의 활동가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행복한 미소가 보이시나요?^^</p>

## ■ 짚막소식

- 9월 12일(목), 조진경 대표가 광주지역 가출청소년의 성폭력, 성매매 실태보고와 대안마련 토론회에서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실태 및 대안’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 9월 16일(월),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 주최 성매매피해 청소년 발견통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방문하여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9월 23일(월),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에 방문하여 센터의 사업을 알리고 학생들 대상 성매매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10월 8일(화), 노원늘푸른자립학교에 방문하여 센터의 사업을 알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REDACTED] 사무국장이 2013 피스&그린보트 참가자로 선정되어 10월 19일(토)부터 28일(월)까지 9박 10일의 여정동안 중국, 대만, 일본 등지를 순회하면서 일본 참가자들과 함께 환경과 평화 문제에 대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11월 6일(수), 조진경 대표가 위기청소년개입방안에 대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 11월 11일(월), 십대여성인권센터와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와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11월 12일(화), 조진경 대표가 청소년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주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워크숍에서 ‘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지원대책’을 주제로 기조발제하였습니다.
- 11월 28일(목), 조진경 대표가 서울시 가출청소년성매매방지정책협의체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설명을 하였고, 서울시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